

철도사고 조사결과 중간 보고서

한국철도공사

전라선

울촌역구내(익산역 기점 156.600km)

제1517호 무궁화호열차(DL7430호 + 발전차1량 + 객차 7량)

열차탈선

2016년 4월 22일(금) 3시 40분 경



2017. 05.

전라선 율촌역구내 무궁화호열차 탈선사고 중간보고서

가. 사고정보

- 운영자: 한국철도공사
- 발생지점: 전라선 율촌역구내 (익산역 기점 156.600km)
- 발생일시: 2016년 4월 22일 3시 40분 경
- 관계열차: 제1517호 무궁화호 열차(DL7130호+발전차1량+객차8량)
- 사고유형: 열차탈선

나. 사고개요

○ 2016년 4월 22일(금) 03시 29분 30초에 제1517호 무궁화호 열차 (용산역 22:45 ⇒ 여수엑스포역 03:52, 이하 “사고열차”라 한다)가 전라선 순천역에서 순천역→성산역간 하행선로 차단작업으로 순천역→율촌역간을 반대선로인 하선으로 출발하여 운행중 율촌역 북부 21A/B호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탈선되어 기관차와 객차 4량이 탈선하였다.

○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ARAIB)는 사고발생 즉시 『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사고조사 개시 통보를 하였으며, 철도사고조사관 5명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시작하였다.

다. 사실정보

○ 사고경위

순천역에서는 사고열차와 선행열차인 제1515열차에 대하여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승인한 운전명령에 따라 순천역~덕양역간을 대용폐색식 시행을 위한 운전허가증을 발행하여 03시 11분경 승강장에 출장하여 대기하고 있던 사고열차 기관사에게 전달하고 03시 29분 30경초에 순천역을 발차하였다.

사고열차 기관사는 서행구역을 60km/h이하의 속도로 통과한 후 운행속도를 증가시키면서 03시 36분 37초경 해룡터널(2,379m)을 진입하여 덕양역 로컬관제원으로부터 율촌역 21호에서 하선으로 운행한다는 무선통보에 응답하였다.

사고열차 기관사는 발흥터널(1,378m)까지 129km/h속도까지 운전하여 율촌역에 접근 중 입환표지가 21A/B호 건널선 방향으로 진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용제동을 취급하였으나, 약 117km/h속도로 21A/B호 건널선(제한속도35km/h)을 통과하던 중 탈선하여 전복되었다.

○ 피해사항

금번사고로 사망 1명, 부상 6명이 발생되었고, 물적피해는 기관차 1량과 객차 4량이 전파되어 약 1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다.

라. 분석 및 안전권고

이 사고조사와 관련한 분석 및 안전권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